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루게 제24738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흠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흠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 리병철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특군상장 서홍찬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인 특군상장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이른아침 또다시 우리 비행사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안으시고 북변의 눈바람세찬 비행장을 찾아주신 김정은동지를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비행사들이 한없는 그리움속에 맞이하였다.



장군의 면모를 다 갖춘 무적의 군종으로 자기 발전의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체의 항공무력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신 수령님들의 주체적항공무력건설업적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장으로 뉘러 군부대의 실재를 료해하시고 군부대에서 우리 당의 의도대로 비행훈련을 생활화하고 주체적인 항공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며 비행사들을 그 어떤 현대전의 공중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역세게 준비시키고있으며 비행기와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지휘관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2006년 3월 2일 이곳 부대를 찾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도사적비를 돌아보시며 주체적인 항공무력강화발전애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특출한 령군실력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주체의 항공무력은 천갈래만갈래 드넓은 하늘길에서도 오직 자기 당과 혁명만을 보위하는 총정의 항로만을 날을수 있었고 사상장군, 도덕

경상적인 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놓은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흠 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군부대 후방사업실태와 비행사들의 생활조건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외진 북변에 위치한 군부대 인것만큼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 대대강실과 비행조종련승종합강실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학습과 비행훈련준비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을 언제 어느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과 조건이 조성되여도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자면 비행조종련승기계에 의한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 훈련을 많이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모든 비행사들속에서 낮은 비행장들에서 리착륙기동방안과 항공공격지대와 반항공방어지대지형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며 불리한 날씨조건에서의 비행방법을 잘 교육시키고 부단한 좌석 및 련승기계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숙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위훈자들을 배출한 자랑높은 부대의 빛나는 투쟁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조국의 푸른 하늘에 영웅적위훈의 비행운을 새겨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선군혁명령도로 분초가 귀하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전투비행사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임의의 시각에 출격하여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당의 훈련명령을 철저히 판철하며 당과 혁명, 사회주의조국을 하늘길에서 목숨바쳐 사수할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식료품공업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김정은동지보고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고는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진군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

도원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게재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관한 나이지리아 전국토론회 진행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관한 나이지리아 전국토론회가 그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6일(아주) 자교원대학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한 도서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나이지리아 아주자교원대학 학생 강보 모하메드 합자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에 관한 전국토론회를 대학에서 진행하는것은 커다란 영광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과 인민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토론회에서는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함만 맨만 무함마드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승리와 인민자주위업 실현을 담보하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에 대하여 개괄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조선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는것이야말로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들 위해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조선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불승의 강군으로 다시시켰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자력갱생연구구조 대리위원장인 나짜라와 주중합대학 교수 우스만 아부 투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주정치의 거장으로 영생하시였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편이여 좌절될 때 조선이 조곰도 끄떡하지 않은것은 김정은동지께서 투철한 자주로선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조선이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자기와 같은 동요나 탈선도 없었던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셨다. 그에 의해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송도원유원지에 모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송도원유원지에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어 설비들을 현대화

하고 질 좋은 명주실을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단천을 공급하도록 이끌어주시며 공장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어머니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불라는 총정의 한 마음속으로 공장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모자이크벽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공장에 모시였다. 송도원유원지에는 동해의 명승 송도원을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존엄원들과 일군들의 절절한 그리움의 정화인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만들어모시리!》가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간다

흥남과 남흥의 주체비료생산기지에서 라오른 비약의 불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새 세계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나라의 대규모주체비료생산기지들에서 비약의 불길이 타올랐다.

올해 흥남과 남흥에서 당이 맡겨준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

이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주체비료생산기지들만 기쁨으로 설레고있지 아니하였다. 선군의 푸른 대지위에 금파만경 설레이고 설이 넘쳐나는 좋은 세월이

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아 온 나라 인민모두가 기뻐하였다.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시어 주체적인 비료공업토대를 마련해 주신 아버지장군님께 주체비료생산자들은 마음속으로 충정의 보고를 아뢰고 또 아뢰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이어가 관철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 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교동치게 하는것인가.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던 그날로부터 흐른 1000여일, 결코 레사로운 날과 달이 아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넘치는 기적이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어떤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려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심장에 새겨안은 1000여일이였다.

같은 조건에서 비료생산을 늘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였다.

우리 나라의 원료조건에 맞게 주체비료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거나 설비들을 증설하여 석탄선별, 분탄생산능력을 높인 성과는 주체비료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같은 조건에서 비료생산을 늘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였다.

우리 나라의 원료조건에 맞게 주체비료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거나 설비들을 증설하여 석탄선별, 분탄생산능력을 높인 성과는 주체비료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은 이렇듯 위력하였다.

생산조건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해나가는 제정신을 지니고 우리 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신민주방직공장 편직사직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나라의 대규모주체비료생산기지들에서 비약의 불길이 타올랐다.

올해 흥남과 남흥에서 당이 맡겨준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

이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주체비료생산기지들만 기쁨으로 설레고있지 아니하였다. 선군의 푸른 대지위에 금파만경 설레이고 설이 넘쳐나는 좋은 세월이

충분히 알수 있었다.

《12월이 가까와올수록 장군님이 더욱 못 견디게 그리십니다. 저의 손을 다정히 잡아 주시며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당부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지금도 귀에 쫄깃합니다.》

이것이 어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직장장 서한희동무의 심정뿐인가.

소문공, 편조공, 조방공들인 락은수, 리성금, 로경실동무들, 하루에도 100리길을 달려며 제쳐있는 일손으로 실을 이어가는 권경희, 장순희, 장일심동무들과 작업장에 올라 빠른 손놀림으로 계산속도를 높여나가는 김경임, 김효심, 황준화동무들, 오랜 기능공들 못지 않게 자기들의 기술기술수준을 높일 불같은 열의안고 주야간투를 벌리는 양성경, 김규순, 안명규, 리경희동무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도 아버지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근거에 후려온 땀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이북 종업원들, 이런 로동계급의 애국의 하루하루가 있어 강성국가의 패망이 더욱 앞당겨져리라는 확신을 새겨안으며 우리는 직장을 나섰습니다.

리영민

과학기술의 힘으로 열어온 증산의 돌파구

주체비료증산을 위해 산악같이 펼쳐진 흥남과 남흥로동계급의 투쟁전선과 일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온것이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온 바로 여기에 주체비료생산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이 있었다.

지난 어느날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자력갱생직장에서 산소분리기와 전기기어기를 우리 식으로 개

조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전기기어기능력이 우리 실정에 맞게 열거 생산과정에 가열 불이 타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는데도 현지산 가열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흥남로동계급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것이다.

자력갱생직장에서 가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면적에 가열분만 해도 120개나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시공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

조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전기기어기능력이 우리 실정에 맞게 열거 생산과정에 가열 불이 타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는데도 현지산 가열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흥남로동계급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것이다.

자력갱생직장에서 가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면적에 가열분만 해도 120개나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시공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

조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전기기어기능력이 우리 실정에 맞게 열거 생산과정에 가열 불이 타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는데도 현지산 가열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흥남로동계급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것이다.

자력갱생직장에서 가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면적에 가열분만 해도 120개나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시공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

조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전기기어기능력이 우리 실정에 맞게 열거 생산과정에 가열 불이 타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는데도 현지산 가열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흥남로동계급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것이다.

자력갱생직장에서 가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면적에 가열분만 해도 120개나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시공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

조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전기기어기능력이 우리 실정에 맞게 열거 생산과정에 가열 불이 타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는데도 현지산 가열봉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이 흥남로동계급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던것이다.

자력갱생직장에서 가열기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면적에 가열분만 해도 120개나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시공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

1 300여개 대상의 CNC화, 현대화 실현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은 지퍼를 내 조국을 지식경제강국으로 솟구치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온 나라 인민이 산악같이 펼쳐 나신 결과, 금속, 기계, 전력 등 나라의 공업부문에서 주요생산공정의 CNC화비중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많은 단위에서 선진생산공정에 대한 통합생산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최근년간 전국적으로 1 300여개 대상의 CNC화, 현대화 실현, 이 자랑한 성과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지식경제강국으로 비약할수 있는 믿음직한 도약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 선진적인 힘을 내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을 생산을 높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대규모철생산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주요 생산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것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서 이바지하는 획기적인 성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년간 피나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주요생산공정들의 CNC화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압연제품의 실수를 훨씬 끌어줄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수습대에 달하는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와 많은 단위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전력관리의 과학화 실현에서 큰결실을 내졌다.

CNC화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돌았다.

최근년간만도 인민군대의 여러 식로공장들을 찾으며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고무된 각직 경공업공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현대화목표는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년간 피나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주요생산공정들의 CNC화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압연제품의 실수를 훨씬 끌어줄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수습대에 달하는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와 많은 단위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전력관리의 과학화 실현에서 큰결실을 내졌다.

CNC화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돌았다.

최근년간만도 인민군대의 여러 식로공장들을 찾으며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고무된 각직 경공업공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현대화목표는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년간 피나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주요생산공정들의 CNC화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압연제품의 실수를 훨씬 끌어줄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수습대에 달하는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와 많은 단위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전력관리의 과학화 실현에서 큰결실을 내졌다.

CNC화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돌았다.

최근년간만도 인민군대의 여러 식로공장들을 찾으며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고무된 각직 경공업공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현대화목표는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년간 피나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주요생산공정들의 CNC화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압연제품의 실수를 훨씬 끌어줄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수습대에 달하는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와 많은 단위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전력관리의 과학화 실현에서 큰결실을 내졌다.

CNC화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돌았다.

최근년간만도 인민군대의 여러 식로공장들을 찾으며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고무된 각직 경공업공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현대화목표는 비상히 높아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연구집단을 꾸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현지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년간 피나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주요생산공정들의 CNC화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압연제품의 실수를 훨씬 끌어줄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수습대에 달하는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와 많은 단위에서 부하전력관리체계의 CNC화를 실현하여 전력관리의 과학화 실현에서 큰결실을 내졌다.

CNC화의 불길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돌았다.

최근년간만도 인민군대의 여러 식로공장들을 찾으며 현대화의 본보기를 창조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고무된 각직 경공업공정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현대화목표는 비상히 높아졌다.

인민사랑의 《철족》은 오늘도 만발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주제99(2010)년 12월 10일, 평양양말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우리 인민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철령을 넘어 최전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최전선인 최후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발걸음은 수도의 크지 않은 양말공장으로 이어지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너성들의 긴양말, 무릎양말, 양말바지 등 사시절 양말을 생산할수 있는 최신식나자양말장량의 눈부신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걱정을 누를수 없었다.

양말을 손에 드시고 누구도 보시고 뒤집어도 보시며 우리 너성들에게 문양고운 각종 양말을 풍족하게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며 공장종업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이 자기들의 생활의 세부에까지 스며드는 친어버이의 사랑을 다시금 깨우며 절감하였다.

이것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드림없는 투쟁목표로 되었다.

일군들로부터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나 최신평화기술로 무장하기 위해 애썼고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 너드나도

이룩되었다.

2년만에 또다시 평양양말공장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신평화기술의 정수인 양말조각기의 현대화를 끝내 우리의 기술로 훌륭히 완성한 평양기계대학의 교원,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하루빨리 세계를 뒤흔고 올라설 패기를 확신하며 평양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사랑의 《철족》은 오늘도 만발합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광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와 일행 모스크바 시내 여러 곳 참관

【모스크바 11월 1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로씨야연방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와 일행이 18일 모스크바에 있는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을 참관하였다.

특사와 일행은 파쇼도이힐란드의 침략을 물리치고 파시즘을 격멸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붉은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쏘드진정들의 주요역전들을 보여주는 반경화판들을 비롯한 박물관의 여러곳을 보았다.

특사는 참관후에 글을 남기였다.

19일 특사와 일행은 케니코프를 방문하였으며 크레믈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 크레믈린 등을 돌아보았다.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을 만났다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마콜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 작전총국장 을 만났다.

평양은 조로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진시키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국방무관과 로씨야연방무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마콜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 작전총국장 을 만났다.

평양은 조로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진시키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국방무관과 로씨야연방무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마콜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 작전총국장 을 만났다.

평양은 조로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진시키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국방무관과 로씨야연방무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마콜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 작전총국장 을 만났다.

평양은 조로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진시키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국방무관과 로씨야연방무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마콜로프 로씨야연방무력 참관모부 부총참모장 작전총국장 을 만났다.

평양은 조로 두 나라 군대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로 발진시키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국방무관과 로씨야연방무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강계시에서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시에서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 사업을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민유물보존관리사업의 종업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유적보존관리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장자강만의 벼랑우에 우뚝 서서 시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있는 판서8경

의 하나인 인풍루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었다.

판서소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자체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역사유적의 복원에 맞게 2 000여장의 조선식기와를 만들어내고 평교대, 서까래 등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유적보존관리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구세하면서 높은 기교를 요하는 단정작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백수십㎡의 마루를 옛모습

그대로 개건하였으며 주변환경도 풍치에 잘 어울리게 정리해놓았다.

당대시기의 특징이 살아나게 망미정, 거연정보수공사도 손색없이 끝내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돌로 쌓은 강계읍성의 근 1 000㎡성벽구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시에서는 또한 강계역사박물관을 개건하는 공사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있다.

온실남새농사의 덕을 본다

순천시에

순천시남새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남새가 시안의 상업망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순천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건설한 태양열온실이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남새온실농장에서는 남새재배구로 100여㎡의 유기질비료를 내고 작물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조듯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특히 관리원들의 호평응답을 실

시하고 로력일평과와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훨씬 높여주었다.

선동, 팽동간이 달린 수심(능력)의 남새지창고를 리용하여 계절에 구애없이 신선한 남새를 보낼수 있는 준비도 착실히 해놓았다.

이곳 종업원들은 율봉에 150여㎡의 부루, 솥갓 등 일남새를 상품에 100여㎡의 유기질비료를 내고 작물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조듯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온실에서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겨울철조건에 맞게 호풍들의 실

내온도보장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는것과 함께 다음구로 심을 남새모를 키우는데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한편 시민위원회, 시험동농경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주민세대들에 신선한 남새가 가당도록 공급사업을 짜고들었다.

추위가 닥쳐오는 때에 신선한 남새를 계속 공급받고있는 주민들은 태양열온실농사를 장려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절감하면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빈 공간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최근 평안북도에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에서는 비상방역지휘부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인원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는 한편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 제때에 통보하고 역할 및 학적감시를 진행하는 등 방역사업에서 자그마한 틈도 생기기 않도록 조직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당시 예방의학적 방침관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을 철저하게 막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속에 도당위원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으로부터 보건부문 일꾼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도에서는 10여명의 책임

적인 일꾼들로 지휘부를 꾸리고 즉시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서 빈 공간이 없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매일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분공들을 주었다.

홍정호, 조원성동무를 비롯한 비상방역지휘부의 일꾼들은 현지를 돌아다니며 방역일꾼들도 소홀히 여기었던 문제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도에서는 우선 국경을 드나드는 인원들을 장악한데 기초하여 그들에 대한 의학감시보다 세밀하게 강화하였다.

국경을 드나드는 대상들을 모두 찾아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전염병에 대한 해설선전도 함성하게 진행하면서 그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펼쳐나서도록 하였다.

에블라비루스감염지역이 아닌 곳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한해서 시, 군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와의 연계밑에 그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알아 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발생지역에서는 대상들은 해당 격리장소에서 의학감시를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발생지역에서 온 대상들이 리용하게 되는 리판들의 위생상태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지휘부성원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결과 발생지역에서 온 인원들에 대한 의학감시를 면밀히 검사구들을 갖추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소독문제, 생활선전의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조직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위생방역지휘부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으로 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방역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위생방역체계 보다 비상이 강화되고 입국자들에게 대한 의학감시를 보다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심되는 환자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어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위생선전사업에 동원된 보건

역기에서 새로 받은 자료들을 제때에 20여개의 시, 군들에 내려보내기 위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짜고들었다.

보건일꾼들은 의학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 그리고 학교들에 나가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발생경위와 전과경로, 위험성, 예방대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위생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선전선전에 서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뛰고 또 뛰는 비상방역지휘부일꾼들을 적극 고무해주며 도당일꾼들도 수시로 결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다.

도비상방역지휘부의 일꾼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철저히 대박하기 위해 찾아내며 방역사업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넘치는 자각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를 찾아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아야 하며 교육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우시군 부흥고급중학교는 남나무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은 산골마을학교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는가 하면서도 성수가 나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보니 학교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학교의 한 졸업생이 1990년에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웅이 된 이야기며 총대로 조국을 받들 불같은 마음이고 몇해전 학교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로 달려나갔다는 감동있는 이야기 그리고 당의 교육정책시상을 받들고 교육조진과 중흥을 개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상급학교입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 울랐음에도 교장은 학생들의 점심식사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을 귀에 걸어서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전국의 여러곳에 대한 취재를 많이 다녀오지만 그런 식당이 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교장은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동대원구역인민병원 의료일꾼들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종합적 자료에 의하면 에블라비루스감염증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그 지역과 국경을 접한 여러 나라들에서 격리치료를 엄격히 진행한 결과 이 병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한다. 이것은 비록 에블라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이 21세기 죽음의 병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예방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미리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모든 선전수단

들을 총동원하여 주민들에게 이 병의 위험성과 전염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환자와 일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 발생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그곳에 갔다는 리행자들에게 대한 21일간의 감시통제기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특히 국경경사검역초소에서 리행자들에게 대한 검사검역사업을 보다 강화하며 선수검역기구를 비롯한 물질적수단들을 검사검역소에 잘 갖추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에블라비루스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위험지역에서 환자들과 해당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킬 수 있는 방을 이르는 곳 마다에 꾸러놓고 필요한 구급

약과 실내위생설, 세면장, 소독시설 등을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의료일꾼들중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 맞게 마스크, 보호안경, 무균장갑, 장화 등 개인위생보호기구를 충분히 보장해줄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에블라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의 치료에 좋은 약물을 사용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개발한 예방약과 치료약들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블라비루스에 의한 전염병에 특이적으로 작용하게 될 예방약과 치료약들이 빠르면 올해말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수 박사 최창식

강원도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대중자신의 사업이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으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당의 예방의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위생선전사업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원도위생방역소에서는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고 있다. 이곳 위생방역일꾼들은 우선 자신들부터가 전염병의 발생경위와 증상, 예방대책들을 완전히 알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일꾼들이 리명남, 윤명길 동무들은 위생방역일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잘 파악한데 기초하여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감별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습에 모를 박고 있다.

한편 이들은 군인민위원회들과의 연계밑에 해당 위생방역소들에 내려가 검역감시사업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우고 있다. 특히 위생선전관영을 짜고들며 주민들이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잘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펼쳐나서게 하고 있다.

원산지위생방역소에서도 시안의 모든 주민들이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관같이 펼쳐나서도록 애매단위 보건일꾼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소장 로제혁동무를 비롯한 위생방역일꾼들은 시위생방역소가 맡고 있는 30여개의



뜨거운 애국의 한 마을안고 도로관리를 잘 하고 있다. -평안남도 득장구 도로보수관리대에서- 본사기자 김진경 찍음

우리 나라 흥국헌선수

2014년 청도그랜드상 유술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중국 청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4년 청도그랜드상 유술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흥국헌선수가 제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금메달의 신성을 안고 남자 73kg급경기에서 출전한 흥국헌선수는 예선경기에서 몽골, 중국선수들을, 준결승경기에서 마자리선수를 한판으로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의 마당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는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완강한 투지로 벨지끄선수를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한편 김철미선수는 여자 48kg급경기에서 3위를 하고 동메달을 받았다.

우리 나라 흥국헌선수가 제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금메달의 신성을 안고 남자 73kg급경기에서 출전한 흥국헌선수는 예선경기에서 몽골, 중국선수들을, 준결승경기에서 마자리선수를 한판으로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의 마당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그는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완강한 투지로 벨지끄선수를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한편 김철미선수는 여자 48kg급경기에서 3위를 하고 동메달을 받았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탁구경기 진행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탁구경기가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에는 100여개 단체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4개 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선수들

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받들고 경기에 편마하여 탁구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체신성, 인민봉사총국, 대성지도국, 조선로동당출판사조에서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20일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탁구경기는 경기와 열정을 넘쳐 울해의 풍광경전을 빛나게 계속해나갈 정부원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탁구경기가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에는 100여개 단체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4개 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선수들

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받들고 경기에 편마하여 탁구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체신성, 인민봉사총국, 대성지도국, 조선로동당출판사조에서 각각 1등을 쟁취하였다.

20일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탁구경기는 경기와 열정을 넘쳐 울해의 풍광경전을 빛나게 계속해나갈 정부원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위원회에서 미국은 EU와 일본을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거수기구를 끌어모아 반공화국(인권결의)을 강행하려 하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결의》는 우리 나라에서 최후되고 도망치거나 유괴되었던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남조자료를들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모략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증상으로 일관되어 있다.

유엔의 역사에 당사국과의 대화, 당사국에 대한 한자재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 부라부라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총회《결의》가 나온 적은 없다.

미국이 거수기를 끌어모아 《결의》 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가까스로 채웠

지만 그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권문제때문에 아니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때문에 투표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은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한 정치적협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은 이번 《결의》 채택의 하수인으로 나섬으로써 지금까지 저들이 표방해온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무런 근거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번에 인권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지도 명백히 밝히고 인권대화과 교류를 모든 도모해나갈 용의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적대세력은 끝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추종국들은 인권대화

를 부르짖던 저들의 립장이 위선이었음을 드러내고 인권대화는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은 유엔무대에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지대》인 것처럼 날조, 매도하여 무력강제의 문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적대적목적이었다.

력사는 미국이 1999년에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명목으로 일꾼 유교슬라비아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개별적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반에 도용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법이 왕왕 강권에 밀려우고 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인권이냐 국권

이라는 우리의 지론을 더욱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한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공세를 대조선적대정책의 최고표현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전면배격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가 무리도 하여금 서든 핵실험을 하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행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적역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의 주모자, 하수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제103(2014)년 11월 20일 평양

이라는 우리의 지론을 더욱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한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공세를 대조선적대정책의 최고표현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전면배격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가 무리도 하여금 서든 핵실험을 하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행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적역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의 주모자, 하수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제103(2014)년 11월 20일 평양

바 레 인 국 왕 에 게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신 임 장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 바레인왕국 국왕에게 사창식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11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국왕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을 충심으로 돌리는 인사를 전하며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국도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주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국도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국도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정영남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개막발언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인수님들께서 한성로국도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산업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주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국도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국도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정영남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개막발언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인수님들께서 한성로국도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산업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로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도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인민의 탁월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국도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성취를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강국, 문명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주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국도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국도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정영남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개막발언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인수님들께서 한성로국도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산업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로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도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인민의 탁월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국도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성취를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강국, 문명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0주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자 《국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국도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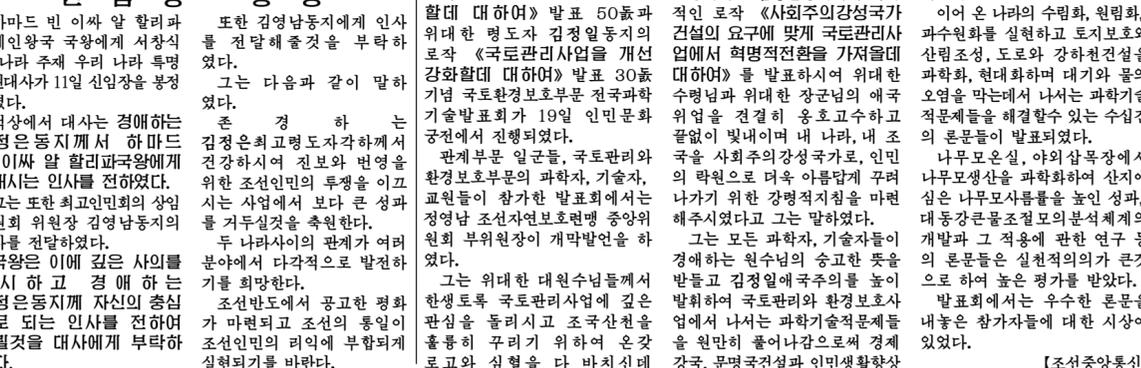
관계부문 일꾼들, 국도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정영남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개막발언을 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인수님들께서 한성로국도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조국산업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로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도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인민의 탁월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국도관리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성취를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경제강국, 문명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비핵세계》구상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앞으로 300억US\$를 들여 핵무기관리체계를 전면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국방장관 해리슨이 기자회견을 벌여놓은 미국방장관 해리슨은 핵무기운용체계가 낡고 판시상 등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5년간 100억US\$를 투입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특히 핵, 미사일부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미공군제타격사령부 사령관의 급수를 4성장군으로 승격시키고 인원도 대폭 늘이기로 하였다.

전권자 언제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였던가실은 정도로 미군부우두머기가 핵무기현대화에 로골적으로 달라붙었다는것을 시사한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막대한 인명손실과 참혹한 재난을 인류에게 들리었다. 인류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은 전쟁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에 살아있는것이 오늘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이 핵무기현대화 계획을 발표하였는 핵무기를 세계제대야망실현의 기본수단으로 계속 틀어쥐고 나갈 속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것으로 그 인공의 지향에 대한 모순적인 도전을 아닐수 없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미국인민중에서 울려나오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였는가.

오바마의 《핵무기없는 세계》건설 구상은 결국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한낱 미사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둘이커보면 민주당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

이라고 《공약》한 오바마는 집권후 외국 핵무기 없는 세계 《핵무기없는 세계》건설 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집권초기 그는 앞으로 임기중에 비록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은 자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집권체층은 워싱턴에서 국제핵안전추진위원회를 벌여놓고 그들의 핵안보보유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놀음도 벌여놓았다.

미국은 《핵안보》를 한다는 명세를 붙여서 미국 《비핵세계》구상이 진척되어 오면 연례를 놀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창하는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의 기만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4년이라는 집권기간은 물론 재선되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데 절반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미국집권자가 추구한것은 공약과 정반대되는것뿐이다.

원래 《비핵세계》구상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모순되는것으로서 처음부터 기만성을 내포하고있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다. 미국의 핵무기고에는 수만개에 달하는 핵무기들이 꽂 들어차있다.

핵무기가 너무 많아 그 유지비용만도 한해에 막대하다고 아우성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고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전진자를 가지고있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전세계를 위협하여 인류를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어 줄려는 미국이 《비핵세계》구상을 들고나왔을 때 그것을 꾀아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공비 경쟁과 대결을 조장적화시키는것을 통하여 침략과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고 지배권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는 나라

이다. 그 수단이 바로 핵무기이다.

핵무기를 세계제대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비핵세계》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던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국가비밀정보서》에 《핵무기없는 세계》가 달성될 때까지는 미국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꼬아박았다.

《비핵세계》구상의 제창자인 오바마는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미국이 어떤 단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핵무기를 가질수 없게 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이 핵군축과 정반대의 길로 출발하고있는것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는것이다.

앞으로 임기중에 비록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은 자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던 오바마는 오늘 그것을 입에 옮기는것을 극력 피하고 있다. 대신 다른 주제들을 내놓고있다. 최근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계속 판여할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남은 임기 2년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다.

《비핵세계》구상은 어디로 날아났는가. 미국은 핵무기축감을 떠들며 다른 나라들에 보증을 맞출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버렸다.

오바마의 집권은 이제 2년 남짓이 남았다. 그가 다음에 대통령에 가면 《유산》을 남겨주려 하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우리를 기고하는것이다. 미군부우두머리는 저들의 핵무기현대화가 북조선의 핵을 억제하는데서 《큰 도움》이 된다고 떠들었다.

앞에서는 《핵무기없는 세계》요 뭐 하면서 뒤돌아앉아서는 핵무기현대화행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집권자들의 괴멸치성과 철면피성은 극도에 이르렀다.

미국이 떠드는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은 저들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제대야망실현행동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병풍으로 불과하다. 여러 핵보유국들의 출현으로 저들의 핵독점이 이미 막을 내린 형편에서 미국은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기만적주호를 내놓고 다른 핵대국들의 핵무력강화를 저지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핵무기를 가질수 없게 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이 핵군축과 정반대의 길로 출발하고있는것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군림하는것이다.

앞으로 임기중에 비록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은 자기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던 오바마는 오늘 그것을 입에 옮기는것을 극력 피하고 있다. 대신 다른 주제들을 내놓고있다. 최근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계속 판여할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남은 임기 2년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이라고 떠들었다.

《비핵세계》구상은 어디로 날아났는가. 미국은 핵무기축감을 떠들며 다른 나라들에 보증을 맞출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버렸다.

오바마의 집권은 이제 2년 남짓이 남았다. 그가 다음에 대통령에 가면 《유산》을 남겨주려 하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우리를 기고하는것이다. 미군부우두머리는 저들의 핵무기현대화가 북조선의 핵을 억제하는데서 《큰 도움》이 된다고 떠들었다.

특등저지말쟁이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낸 이 말발은 우리의 핵억제력의 정당성을 다시금 반증해줄뿐이다.

2009년에 미국에서 첫 흑인대통령으로 등장한 오바마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할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집권초기 북조선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조선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는 외교정책을 펴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우리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기에 지나지 않는것이었다는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인제척된 명백해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핵전쟁공격명단에 올려 놓은 미국의 핵전쟁광신자들은 사건경고없이 우리 나라를 핵전쟁공격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미국은 전략핵공격무기들을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전례없이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미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지피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팽기를 무릅수 있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지 않는것은 미국의 침략, 군사대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된다. 이라크, 리비아사태는 핵전쟁공격력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나라들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테러의 희생물, 피해자로 될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우리는 미국집권자가 기만적인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해나선데 대응하여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온것을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으로 여기고있다.

제반 사실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가 있을수 없다고 우리 공화국정부의 입장이다. 유혹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리 현 도

영국공산당(팍스-케닌주의)가 판지 《팔카르》 11월-12월호가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비방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의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신성한 인권문제를 악용하여 자국적인 나라들에 정치적압력을 가하고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 가장 전형적인 실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인권》소동이다.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조선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 위해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나오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발표된 조선인민연우회협회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제도과 상황을 명백히 반영한것으로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무근거하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거짓과 사기협박이 필요하다.

미국은 출판보도물을 통해 사람들의 정상을 인공적으로 혼란시키는 시방식인 사관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모략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는 꾀아니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을 헐뜯으려는 불순한 목적과 정치적도는 파탄을 면치 못했었다.

※ ※

브라질자유주국당 부위원장 로자나미 캄보스가 6일 신문 《오라도 보보》에 《미국독점 이용수단들의 허위선전》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행동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최근 미국의 언론기관들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인권》소동이다.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조선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 위해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나오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발표된 조선인민연우회협회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제도과 상황을 명백히 반영한것으로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무근거하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거짓과 사기협박이 필요하다.

미국은 출판보도물을 통해 사람들의 정상을 인공적으로 혼란시키는 시방식인 사관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모략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는 꾀아니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유엔 인권리사회는 선행자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 사회가 경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리사회의 활동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18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열린 여러 나라 대표들이 유엔 인권리사회가 추천국가들에 대한 정치적보복수단을 조 리화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로세야의무성 인도주의협조 및 인권국 국장 알렉산드르 흐리도브는 유엔 인권리사회의 활동에서 정치적동기에 따라 일부 국가들에 대해 보복하거나 무근거하게 표시하며 형벌을 가하려는 경향이

농후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로세야는 이러한 나라 《인권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시도들을 경계한다고 말하였다.

유엔 인권리사회는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협조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그렇지 않다가는 리사회가 신용을 완전히 잃게 될것이며 신용을 상실하면 그 전신으로 2006년에 자기의 존재를 마친 유엔인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을 퇴출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엔주재 수리아상임대표 바샤르 자파리는 유엔 인권리사회

클라우스 요한니스 로미니아 대통령 선거

그는 16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 2차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이스라엘의 강점정책 규탄

팔레스타인내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가 15일 팔레스타인국가선로 26층에 즈음하여 한 텔레비전방송연설에서 이스라엘의 강점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유엔인정자치총회장청동을 계속 해야달라고 유드스를 유대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부당 강점정책은 이 지역을 종교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것이라고 하였다.

지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강점을 반대하여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민에게 적극적 지지와 보내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빼앗아 갔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의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네메레호트 시에서 최근 조류투쟁이 발생하였다. 16일 이 나라 당국은 시에 있는 한 닭농장에서 조류투쟁범리부스에 갇힌 닭들이 발견되었다 하였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0만명에 달하는 5살미만 어린이들이 로라비루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있다. 이 비루스에 전염되면 배아물, 개우기,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최근 한 국제조사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2013년에 홍역으로 14만 5700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 2만 3700명 더 많은것이라고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원도미사일 시험발사

인도가 15일 오리싸주의 벵갈만에 전개된 해군함선에서 국산제 《나두유》란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지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수 있는 이 란도미사일은 최고 10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한편 파키스탄도 17일 《사한-1A》(하드-4)국산제중거리란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900km인 이 미사일

수 있다고 한다.

석유화학제품수출 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 21일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7개월 동안에 석유화학제품수출량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대되었다. 16일 이 나라의 파르스통신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수출 증대, 경제 성장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들어 첫 9개월 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대되었다. 14일 이 나라 통계국

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3.4분기 경제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5.6% 성장하였다. 같은 날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원유정제공장건설 계획

인도네시아에서 원유정제공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4일 정부는 현재 있는 원유정제 공장들이 허위정보로 수 3분의 2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장들을 더 건설하여 긴장한 연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할것이라고 밝혔다.

에 대해 밝혔다.

에블라비루스감염증방지노력

아프리카에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으로 인한 피해를 가시기 위해 에블라비루스검사를 실시하였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지역나라들에 의해 설립된 이 기금은 에블라비루스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와 지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0일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시에라레온에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불법리지역에 10개의 진문치로 시설을 새로 내오고 에블라비루스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된다.

민주공화국 에블라비루스



정부의 도청활동 폭로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 14일부가 당국의 도청활동을 폭로하였다. 신문은 미사법정이 2007년부터 범죄행위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주민들의 손전화기를 대상으로 도청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당국이 고도기술기계를 설치한 소형비행기로 도청활동을 벌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정부의 감시 및 도청활동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소양권에 총력을 다 쏟아부었다고 미국을 배후로 하는 《이슬람교국가》의 테러도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이슬람교국가》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하기 사업을 공개했다. 다음달에는 두번째 미국인인질의 목을 자르고 그 장면을 담은 《미국에 보내는 두번째 메시지》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을 공개하였다.

동영상에서 복원한 한 전원은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 감행되고있는 이상 수리아의 목을 인류의 목을 시종일관 자를것이다.》라고 하였다. 저어 그들은 《백악관지붕에서 알라히의 기발을 휘날릴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슬람교국가》의 강경한 태도로 보아 그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미국의 한 테러문제전문가는 지금 미국리력을 가진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국가》로 불려가고있다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미국을 위협해오는 《이슬람교국가》가 미국본토에 대한 테러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였다.

까마귀날자 배행어전다고 이란 속에서 정체를 범의 판형인 백악관을 노리고 침입하는 급속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어처구니 없는 정체를 범의 백악관침입사건으로 미국의 워싱턴은 어비규환으로 되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을 지키는 비밀경호국이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공격을 해당시키는 등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는 놀음

각종 전염병에 의한 피해

말리에서 에블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11월부터 4월 말까지 동안에 전국적으로 4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었으며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7판에서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엄격히 감시하는 등 비루스의 전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근 신종코로나비루스에 의한 피해 일고있다. 13일 이 나라 보건성은 11월에 들어와 24명이 이 비루스에 새로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감염된 자들은 800명여, 사망자수는 340명으로 늘어났다.

네메레호트 시에서 최근 조류투쟁이 발생하였다. 16일 이 나라 당국은 시에 있는 한 닭농장에서 조류투쟁범리부스에 갇힌 닭들이 발견되었다 하였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0만명에 달하는 5살미만 어린이들이 로라비루스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있다. 이 비루스에 전염되면 배아물, 개우기,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최근 한 국제조사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2013년에 홍역으로 14만 5700명이 사망하였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 2만 3700명 더 많은것이라고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한 전대미문의 범죄

인류역사에는 침략과 약탈에 대한 기록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미국의 남조선강점처럼 절명적 역할을 철저히 식민지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그러한 범죄는 찾아볼 수 없다. 사는 아직 일지 못한다.

미제는 아시아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군사교두보로 삼고 아시아와 나아가서 전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써 19세기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다.

일제의 패망을 기화로 미제는 1945년 9월 8일 《해방사》 《보호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결코 《해방사》도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감정이며 대량추적 남조선의 국제법적근거가 없는 완전한 불법, 비법적인것으로서 그자체가 비법적인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다.

간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간행을 미군정청으로 바꾸어달라고 고약한 궁정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강점 첫날부터 포악한 궁정을 무리 무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았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해버리고 모든 진보적정당, 단체들의 활동마저 비법화하였으며 각계 인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 결과 1945년 9월부터 1949년말까지 무려 162개에 달하는 정장, 사회단체들이 해산되었으며 어려운 형과 징구 등 수많은 진보적인 주민사들이 암살되었다.

인간살상행위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저지른 범죄중에서 가장 큰 범죄였다.

1946년 8월 15일 조국해방 1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좌완관망로동자 1000여명을 비행기와 땅로를 비롯한 현대적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한 미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미국이 우리를 탄압하고 칼로 저르는 등 야비한 행위를 저지르었다. 로동자들이 흘린 피로 물든 땅은 마치도 치열했던 전쟁을 방불케 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

압학살하였다. 1948년 4월 제주도인민항쟁이 일어나자 미제는 《제주도민들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전선에 휘말릴을 못하고 모두 죽도록 출다.》고 대대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총으로 조아악으로 칼로 찔러죽이고 목베달아죽이고 생체장해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8년 10월에는 려수 인공풍등을 야수적으로 집압하면서 전라남도 려수와 순천에서 2400여명을 학살하고 450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미제의 이런 귀족같은 만행은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커리집되어 감행되었다.

미제의 야수적탄압으로 1946년 10월 대량으로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10월 인민항쟁도 2만 5000여명이 죽고 수천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수만명이 부상당하였다. 미제는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월까지 저지른, 태백산, 오대산 등 5개 지구에 대한 특별에서 4만여명을 학살하고 수만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썩어빠진 인종주의사상과 패륜패덕에 물든것으로 물든것은 미제야수들은 살인, 강간, 폭행 등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서 패락을 느꼈다. 1947년 1월 미제철약국이 부산시의 어느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저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죽이던 사건, 1948년 6월 미제공중비행기들이 독도주변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여 11척의 어선을 파괴하고 14명의 어구를 살해한 사건, 1949년 6월 인천항에 주둔하고있던 미제철약국이 길가는 조선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그중 한명을 머리예 판공상을 입혀 죽이던 사건, 1947년 1월 철차안에서 미제철약국 24명이 어린이까지 죽인 3명의 조선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톨간한 다음 마구 때려 질식사한 사건 등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내외에서 미제침략군을 《살인단》 《강간단》, 《성폭행단》이라고 지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미국이 그 무수한 인권탄압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의지도 없는 《인권》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인 극이다.

오죽했든 미제의 이러한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미군정청으로 있던전까지도 《남조선에